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영유아음악교육의 당위성 재고

김 영 연*

과학과 정보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지만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삭막해졌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이 전 생애를 통하여 필요하다는 명제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서 음악교육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 심리학에서 주장되어왔던 지식관과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교육과정을 해체하거나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에서 교육을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해 보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심리학에도 반영되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을 영유아음악교육에 접목시켜 철학적, 교수내용적,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영유아음악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바람직한 실행의 방안을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였다.

※ 주제어 : 포스트모더니즘, 아동심리학, 영유아음악교육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아동심리학의 다양한 관점
 - 1. 전통적 관점
 - 2. 새로운 관점
- III. 영유아음악교육의 당위성
 - 1. 고찰의 결과
 - 2. 실행의 방안
- IV. 나오며

*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I. 들어가며

인간성의 상실, 물질만능, IT의 노예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다. 통일성과 일치성을 강조하던 이전의 사고방식 대신 상대성, 상이성, 조화로움에 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김희연 외 역, p. 2007).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각자의 다름은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아무 것도 없는 영(zero)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유혜령 역, 2005).

근대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라기보다는 어른의 축소판 정도로 여겨 어린이의 고유한 사고방식이나 발달과정은 특별히 인정하지 않고 시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존재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과학과 교육 이론이 발달하면서 어린이는 어른과 분명히 구별되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행동적으로 고유한 발달과정과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그렇게 때문에 발달의 단계에서 차별화된 교육 방식이 어린이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장되었다(강현석 외 역, 2011). 즉 교육과 발달은 맞물려 진행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현재의 수준 향상을 강조하므로 가치창조를 위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이지만 발달은 현재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발견과 기술에 초점을 두는 기술적이라는 점에서 교육은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아동심리학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최근의 관점에 대한 영유아교육자의 관심과 연구도 필요하다.

흔히 현대는 인간의 내면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므로 인간관계의 붕괴가 가속화되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 일컬어진다. 이는 힘의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관계 속에 숨겨진 물질관계를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의 우울한 단면이요 특징일 것이다. 푸코(Foucault)와 피나(Pinar) 등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와 같은 의도적인 사회적 관계와 관계 유지의 과정 속에는 사회구조와 정치, 경제, 교육의 흐름과 현상이 인간 행동 저변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인간성에 기초한 관계보다 힘의 역학 관계를 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김방현 역, 1990). 결과적으로 인간 본연의 자세는 붕괴되고 물질이 앞서는 역학 관계는 교육에서도 존재하여 힘의 구조에 의한 사회적 위계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Freire, 1973). 보르뒤(Bourdieu, 1970)와 브루너(Bruner, 1995)는 교육으로

인해 사회적 모순이 강화되고 재창조되는 현상에 대해 교육자들의 관심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술세계는 인간 내면의 표출 과정과 결과를 다루기 때문에 예술교육의 순기능과 역할 및 가치에 대한 재조명 또한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발달의 초기단계로서 언어 발달 이전에 비언어적인 표현과 상징적 표상을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상징적 표현과 표상에 중점을 둔 영유아기의 예술교육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곽금주 외, 2005; Gardner, 1983; 1993).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도는 효율적인 예술교육 실천에 걸림돌인 것 같다. 풍부한 감성적 경험과 자유로운 사고의 세계를 맘껏 경험해야 할 청소년들이 대학 입학이라는 사회적 관문 앞에서 부자유스럽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미래형 인재양성의 목표로 제시하는 창의인성교육의 실현 전제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사고하기와 자발적인 표현하기는 제도권 하에서 제한적이다. 박향원과 임부연(2012)은 현 교육체제가 강조하는 창의인성교육은 오히려 또 하나의 교과영역으로 오해될 정도로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게다가 유아 대상의 갖가지 조기교육은 장차 있을 대학입시와 맞물려 유아의 숨은 능력을 획일화시키고 보편화하여 특정영역에서의 개인의 예술적 잠재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될 지경이다.

허숙(2012)은 최근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최근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습의 융통성이 오히려 곡해된 융합과 통섭을 주도할 위험에 처해 있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른 교육가들의 경직된 사고가 교육과 학습의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어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융합과 통섭으로의 기술적 접근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통하여 수학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음악은 제공되지 않고 과학을 하면서 예술적 체험이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예술 활동은 단편적 체험에만 머물러 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개인의 내재화와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불충분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관성에 기초한 개별적 감성의 표현과 행동발달을 위한 예술교육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영유아에게 예술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예술교육은 현대사회가 시도했던 탈근대화를 넘어서서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책임지는 행정가들과 정치가들은 미래사회의 예술교육 주요 대상으로 누구를 생각하는지, 예술교육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질 때 교육 전반이 성공적일 수 있

다는 평범한 진리를 놓치지 않는지,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비중을 두는지 자못 궁금하다.

예술교육이 부재일 때 교육은 오히려 실패로 향했다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부시대통령이 주창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뛰어난 교육개혁의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은 이유가 바로 예술교육의 부재에 있다. NCLB(National Council of Literature Board)에서 시도한 writing, arithmetics, reading 의 범주에 음악읽기를 포함하지 않은 점 역시 실패된 융합정책이라는 지적은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Shuler, 2012).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영유아 대상의 예술교육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나? 예술교육이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지 못하며 사교육에 의존하여 제도권 밖의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음은 무슨 이유일까? 영유아 교육기관의 예술교육에 대한 홀대는 마치 초기 문해 학습의 다양성이 초기 특수교육을 생성할 수 있는 기초 역할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곡해 내지 과도하고 오만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킨 사례와 다르지 않은가? 명분상의 특수교육개혁 시도는 대중에게 필요한 문해 학습 발달정책을 장애아와 영재아로 제한하는 협의의 특수교육으로 축소시켰었다(강현석 외, 2011).

예술교육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례가 없을까? 관련하여 엘리엇(Elliot, 2012)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잘못된 예술교육 정책이 예술교과 학습을 저해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유지를 방해할 수도 있고 둘째, 음악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유아를 위해 음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연구자는 아동의 이해에 대한 초현대적 관점에서 예술교육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학문적 반성은 세계의 음악교육연구 동향을 연구한 석문주(2004)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Update, JRME, CRME, IJME 등의 학술지에 기재된 음악교육연구는 주로 실험에 의존한 심리학 연구가 주종이었다는 것이다. 심리학은 학습을 신중하고 반성적으로 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왜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철학적 고찰에서 출발하므로 교육에서 철학적 심리학 고찰은 당연한 학문적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을 예술교육에 연결하여 영유아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전에 왓슨이나 손다이크가 제시했던 지식의 산물이 곧 기술이라는 심리학의 전통적 관점이 과학과 정보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영유아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가?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대한 성인의 관점은 아동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현대의 영유아음악 교육내용과 방법은 문화적 다양성에 얼마나 민감한가? 교수-학습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의 오용에 기인한 잘못된 합리화의 근거가 오히려 아동의 입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등은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 기초하여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가 바뀌면서 강조하는 바가 달라지는 아동심리학의 변화하는 관점에 준하여 영유아예술교육의 당위성을 철학적으로 주장하고자 관련문헌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전인적 발달과 창의 인성교육이라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있어서 영유아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실행의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1: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을 교육철학, 교수내용, 교수·학습방법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연구내용 2: 영유아음악교육의 당위성과 실행 방안에 대하여 교육철학, 교수내용,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논의해 본다.

Ⅱ. 아동심리학의 다양한 관점

1. 전통적 관점

심리학은 개인의 학습을 신중하고 반성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므로 심리학은 개인의 사고, 믿음, 선택을 유지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동과 태도의 근거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학문이다(강현석 외, 역, 2010). 초기 심리학은 적절한 사회적 역할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학생의 특성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여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했는데 이는 경험주의, 합리주의, 사회역사적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된다. 흄의 경험론 철학에 입각한 경험주의는 지식의 획득이 지각학습, 인지학습, 전이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보고 교육과정의 학습목표로서 활동의 분석을 고전적 학습이론에 의하여 구체화한다. 즉 학습자의 행동에 대한 검사를 통한 평가와 연구, 직접적이고 논리적 형태의 위계적 단계에 의한 학습이론이 경험주의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데 대표적인

이론가로 왓슨, 손다이크, 헐과 스키너가 있다. 경험주의의 장점은 현대교육이론에 발견적(heuristics) 방법을 제시하여 발견학습이론을 등장하게 한 점과 평가를 중시한 결과 연구도구의 개발을 활성화하여 교육가들에게 도구 활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점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결정과 관련한 다면적 요소 즉 사회 맥락적이거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Case, 1996).

데카르트와 칸트의 철학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심리학에 의하면 학습의 발현은 외부자극이 아닌 내부 구조에 있다고 본다. 합리주의에 입각한 대표적 교육이론가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창시자 피아제이다. 왓슨(Watson, 1996)은 구성주의에 입각한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 입각하여 아동이 발달단계를 거치는 동안 자신의 환경을 경험하고 환경에 대한 모형을 만들며 이들 모형의 적절성을 반성해 나가는 자기 참여의 과정에서 추출되는 내적 활동은 아동 스스로를 발달시킨다고 설명한다. 즉 구성주의 이론은 개인의 직접 체험에 의하여 내재화와 체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식은 구조화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아동에게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아동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 요소를 찾아내어 이에 기초하여 아동의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안내된 발견에 대한 교육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은 구성주의의 장점으로 높이 평가된다. 또한 구성주의 교육이론은 경험주의자들의 주장과도 같이 교수-학습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세부교과에 대한 교수-학습 연구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관찰을 강화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예를 들면 ‘위험에 처한 아이들’(Children at risk)은 수학교육에서의 구성주의 이론을 구체화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적용 과정 중 개인간(interpersonal)와 개인 내(intra personal) 발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내세우는 발달 단계에서 개인에 따라 도약이 발생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왓슨, 1996).

전통적 심리학의 이론으로서 헤겔과 맑스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기초한 비판이론이 있다. 비고스키는 문화적 관점에 의한 학습이론의 전개를 주장하는데 인간 문화가 곧 그 자신을 발견해내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맥락 그 자체라고 이야기한다. 교육은 이런 제반 환경과 맥락에 대처하면서 이전까지 발전시킨 사회적이고 언어적이며 실제적인 지적 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Wertsch & Penue, 1996). 비판이론에 의하면 실제적인 지적 도구는 세대를 통하여 전달되는 문화와 모방 활동과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적극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하고 상호작용은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학습의 과정이라는 관점이다. 더 나아가 고차원적인 환경 제공은 인간의 사고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학습에서의 문화적 체험 과정은 중요한 교육내용으로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참여관찰자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사회역사적 이론에서는 특히 강조한다. 그러나 지적 발달을 논함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지력에 대한 체제 전반적인 변형을 전통적인 사고와 교수법에 의존하여 모든 결과를 학교 교육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판은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도리어 지지한다는 점에서 재미가 있다. 일례로서 언어와 문해 발달 간의 비연속성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는데(Kruger & Tomasell, 1996) 아동이 구사하는 학교 안의 언어와 학교 밖의 언어는 동일하지도 않고 동일시 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심리학에서는 고전적 교수법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일반화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난센스가 될 수 있다.

2. 새로운 관점

초기 심리학이 장차 주어질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정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역할 수행을 통해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설계했다면 현대 심리학은 인간발달 연구에 있어서 교수자의 관점보다 아동의 관점을 더욱 강조한다(Olson & Torrance, 1996). 아동이 소유한다고 예측되는 학습 능력이나 예술적 잠재력, 그리고 소유한 지식이나 기능은 아동 스스로가 가지는 실제적인 믿음과 의도 또한 아동에 대한 이해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슨과 토랜스는 답습되는 교수자의 입장이 오히려 아동의 발달과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교실은 사회적 담화의 장소로서 서로의 이해를 갈구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실은 구성원간의 문화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다. 이상의 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은 교육을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관점은 발달의 단계가 인간에게 존재하는 영속적인 특성이기보다는 체험과 학습을 통하여 창조의 과정을 거치며 학습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고스키의 근접발달이론 역시 학습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특성이나 단계 대신 적절하게 접근할 있는 교수적 접근이라고 여김으로써 심리학적 이론과 교육의 실제 사이의 간격을 좁히

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방법이다(Case, 1996).

그러나 학습에 관한 내부자(internalist)적 견해와 이론 형성에 관한 사회적 견해, 간주관성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교수-학습에 대한 공동적 이해를 기본 전제로 하는 점이 아동심리학의 전통적 관점과 다른 입장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과학의 발달과 역행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환경이 황폐해지는 현실과 교육의 시작기가 영유아로 점차 하향화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을 교육철학, 교육내용, 교수-학습으로 구분하여 고찰해보았다.

1) 철학적 측면: 변화하는 지식관

전통적 심리학에는 진리는 불변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진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가변적일수도 있다는 명제 하에 진리를 규명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관찰과 실험은 연구가설을 증명하여 교육실제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교육에서의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해체주의자들은 오히려 삶과 삶의 통합성을 지향하는 탈근대적 교육이 삶의 실재적 양상을 깊이 있게 이해시켜 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 준다고 한다. 오히려 근대 정신이 이룩해 놓은 객관주의적 인식론과 방법주의적 사고가 구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미래의 비전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이다(유혜령, 2012). 이는 불안과 불확실한 상태의 매력에 대한 전통적 심리학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말로서 재개념주의자들은 교육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교육 속에서 개인이 갖는 경험과 의미를 탐구하고 그 안에 내재하는 주관성과 관계성을 찾아내기를 권한다. 그들이 바라보는 교육이란 기계적, 공학적, 과학적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의미의 형성을 통한 창조적인 과정에서 얻어지는 느낌과 이해되는 사고의 틀 그리고 인식의 세계를 뜻한다(박향원, 임부연, 2012). 최근 영유아 교육 연구가 관찰에 기초한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의미탐색과 해석학적 연구가 관심을 받는다는 점(유혜령, 2009)과 상통한다.

2) 교육내용적 측면: 언어 그리고 그 이상의 것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은 상징적 표현과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생각하는 내용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해 내는 능력은 신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선물로서 박은실(2012)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독립적인 사

고의 과정과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과 표상을 통하여 유지된다고 하였다. 인간이 다루는 지식이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만은 아니며 언어와 같은 상징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언어와 논리, 수학과 과학적인 지식만을 중요한 지식으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그들이 배워야 할 지식의 전부를 다룬다고 할 수 없으며 학교라는 형식적 교육체제는 개인이 소유한 전부의 능력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완의 체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이즈너(Eisner, 1994)는 지적 성장에 따른 인간 내면의 개념화된 영역인 언어, 수학, 음악, 동작, 그림 등의 다양한 표현방식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과 각급 학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이 표출될 수 있고 이것이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식이 담긴 유의미한 체험을 교육내용으로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럴 경우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되는 교육내용이란 ‘아동이 생각하는 그 무엇 전체’로 축약할 수 있다. ‘그 무엇’이란 지식의 세부적인 내용과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사고의 내용과 방식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유아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내고 또래 유아들과 의미를 공유하며 유아들 나름의 의미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탁월하므로(곽금주 외, 2005)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유아의 모든 것은 새로운 관점의 교육내용에 해당된다.

3)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 학습자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전환이다(Case, 1996). 현대사회에서 교수자는 아동의 존재성을 규명하는 과학적 지식 대신 아동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는 철학적 고찰이 더 필요하다. 아동과 아동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내용과 환경 구성이 달라지고 이것은 교육적 결과물을 달리 가져오기 때문이다(김희연 외 역, p.92). 따라서 아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문화의 재생산자이면서 공동구성자로서의 아동, 삶의 주인공으로서 아동, 자연으로서 생물학적 발달 단계를 밟아가는 과학적 존재로서의 아동을 인정하는 것이다.

승윤희(2004)는 지식이란 인지적인 얇이며 지식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인식되어 왔고 지식은 언어, 수학, 과학, 논리지식 뿐 아니라 예술의 각 영역에서 독자적인 지식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바라보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전통적 관점의 지식과 지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 과정까지도 지식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지식은 가치를 지닌 무유형의 존재와 그러한 존재에 대한 추구의 전부가 지식에 포함된다. 이에 교수-학습 방법으로 언어적 접근은 물론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는 다양한 모습의 상징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수원(2012)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문해는 읽기나 쓰기처럼 다양한 교과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인지적 기술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바흐친(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의 언어사용은 인지적 기술과 같은 단일의 발달심리학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규칙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내용은 유아와 교사가 대화의 참여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 맥락이 되어주며 교실도 유아와 교사공동으로 형성할 공동체이고 공동체 형성과 유지에 예술교육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함축하여 전달한다.

요약하면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 의한 교수-학습 방법은 철저히 학습자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상징적 체험과 표상활동은 그들의 입장과 생각, 표현방식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동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무엇을 생각하는 지 왜 그러한 생각을 그렇게 하는 지에 대하여 아동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인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므로(Hargreaves, 1986) 이 점에서 피아제나 비고츠키의 구성주의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 교육은 학습자의 마음에 대한 기다림과 배려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Ⅲ. 영유아음악교육의 당위성

우리가 체험하는 사건, 상황, 경험은 일곱 색깔 무지개보다도 더 찬란하다. 그런데 왜 하필 음악적 체험이 필요한 것인가? 개인에게 내재된 무형의 지식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개인적 존재를 통하여 조화로운 행동으로 옮기게 해 주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음악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음악의 세계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암시하는 아름다움의 조화가 숨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2010년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이어령은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함축하였다.

질문: 얼음이 녹으면.... (아이들아,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니?)

답: 물이 되어요. / 꽃이 피어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위의 답들은 모두 맞다. 그러나 두 번째의 답은 듣는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한다. 봄의 세계로 꽃의 세계로 꿀벌과 새들의 소리를 들려주며 봄을 기다리는 벅찬 생각으로 우리 가슴을 훈훈하게 한다. 짐작하건데 아마도 나이가 어릴수록 두 번째 답을 하는 수가 많을 것 같다. 어른이 될수록 꽃이 핀다는 대답보다 물이 된다는 답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1. 고찰의 결과

1) 철학적 측면: 영유아에게 음악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린(Greene,1996)은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한 예술은 영원한 것이며 문명의 위기를 맞을 때 인류에게 예술이라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상반적이다. 이흥수(2006b, pp.146~148)는 우리나라 학교현장의 음악교육 상황에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학생은 음악수업과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부모와 일반사회인들은 자신의 음악향유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녀들의 음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음악교과의 당위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음악교사들은 감축되는 수업시수로 인해 위축감을 느끼고 자신의 음악교육에 대한 신념과 현장에서의 실현을 위한 실제 사이의 존재하는 거리감을 발견하면서 음악교과교육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

교육현장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음악이 인간 삶의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 이렇게 예술의 세계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진학과 취업과 거리가 먼 허구일 수도 있으므로 교육 행정가를 포함한 대중은 일상생활에서의 음악의 가치와 힘을 인정하지 않기에 음악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바로 이 점, 즉 보다 설득력있는 당위성의 제시가 음악교육계와 예술교육계가 풀어내야할 문제점이다.

이흥수(2006a)는 음악과 교육은 음악이론과 정보와 사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기억하기도 하고 연주 행위만 하고 지나가는 방식의 지식과 기능 및 활동을 지도

하는 것에서 교육현장은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음향, 악보 및 활동으로부터의 파생되는 의미와 아름다움과 음악의 원리를 탐색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느끼고 사고하며 악곡의 내면에 함축된 의의와 가치를 통찰하고 판단하여 탐지된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음악적 행위를 시도하고 창조하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함 같이 민경훈(2009)도 한 인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의 균형적 발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조화로운 감성의 계발을 위하여 예술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마도 음악교육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사항으로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왜 음악교육이 필요한가? 더구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정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예술교육 지식은 언어적 사고를 넘어서서 인지적인 작용과 동시에 감성적 작용을 동반하는 기능 이상의 지식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하던 바와 같이 좋은 감성영역에서의 재능 정도로 인식되어왔던 음악교육에 대한 관점은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언어(만약 언어도 상징이라는 전제를 수용한다면) 이외의 상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음악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징체계의 이해의 방법에 대한 고찰이 심리학의 새로운 논의감이다.

심리학과 음악교육의 연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승윤희(2004)는 유추표상(analogical representation) 이론을 소개하면서 심상(visual imagery)이 유추표상의 대안적인 형태라고 설명한다. 그녀에 의하면 유추표상 이론은 유아기의 인지발달을 설명하는데 특히 유용한데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에게 심상은 공간적 정보의 조작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며 구체적 사고 외에 추상적인 사고에도 활용되므로 새로운 정보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심상을 사용하면 정보 기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음악지식의 습득은 다양한 음악교수-학습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는 브루너가 단계학습이론에서 활용했던 상호작용(interaction), 부호(icon)와 상징(symbol)의 유기적인 관계를 회상시키며 이러한 체계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단계적 과정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 경험과 해석을 위한 가치 창조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 전체가 지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상을 바탕으로 아동심리학에서의 영유아음악교육의 당위성은 그린의 주장과 같이 듀이 다시읽기로 출발 가능하다.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동사로서의 마음 읽기와 상상력을 즐기고 이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수반되도록 도와주는 지식은

무엇일까? 이는 바로 학습자인 영유아의 흥미와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가치 판단을 돕고 문제해결에 돕는 철학적 기초가 된다.

2) 교육내용적 측면: 영유아의 일상생활이 곧 음악교육의 내용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사고한 것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있다. 역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표현한 어떠한 형태의 결과물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소통 가능할 때 더욱 존중될 것이다. 권덕원(2004)은 1997년에 제정 공포된 당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과의 교육목표를 예로 들며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목표라고 보고하였다. 음악적 정서란 음악적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느낌을 시인은 시로 화가는 그림으로 하듯이 자신의 느낌을 당연히 음악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음악교육의 내용은 음악 속에 구체화된 질서와 의미를 느끼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복합체일 것이다. 악곡 그 자체와 악곡 표현의 행위, 악곡을 통한 행위 등 그 모두가 음악교육내용이 된다. 영유아도 음악교육을 통하여 심미적 경험을 넓혀야 한다. 왜냐하면 음악적인 느낌 또는 음악적인 정서가 풍부한 영유아는 음악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도 내포된 인간의 느낌을 감지하게 되고 느낀 만큼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과 관계는 글로벌 국제사회가 교육목표로 지향하는 소통과 상생으로 연관된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미셸 루트 번스타인 부부는 “예술이 중심이다”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하여 과거 노벨상 수상자들이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이는 과학과 지식 중심에 예술교육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강조로서 예술교육을 통하여 과학 및 의학 부분에서의 발전도 예상되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김영연, 이영애, 2010). 아무리 과학이 무한 성장하고 있는 현대라 할지라도 교육내용이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고 과학에만 의존하는 결과는 인간이 진정 행복할만한 사회창조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있다. 결과적으로 음악은 우리나라 영유아와 청소년 모두에게 그들의 정신세계와 영혼을 풍요롭게 살찌울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교과라는 점은 전혀 새롭지 않지만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서는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결과물로서 발표된 서울 아젠다는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인 예술실천을 추구하고 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며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 지침으로서 예술교육의 정당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위한 예술교육의 발전 목표를 향유자의 접근성에 두고 평생교육 및 세대 간 공유할 수 있는 예술교육을 촉진하였다(한국예술교육진흥원, 2008). 이는 곧 영유아음악교육의 내용이 단순한 음악지식이나 활동이 아니라 예술교육적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음악 요소가 담긴 모든 환경과 지식과 체험이 음악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관점이다.

3)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 예술적 경험 쌓기는 습관의 형성에서 비롯된다.

전통적 심리학에서도 가치로움의 추구는 상징에 대한 이해에서 가능하다고 하였고 교수자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자가 표현하는 상징세계와 체계를 이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서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이해를 넘어서 공동체로서 교사와 영유아, 영유아 자신과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구성하도록 권유한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이란 경험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파생되는 확장된 경험과 느낌을 의미한다. 즉 반복되는 예술체험은 습관과도 같이 취급될 수 있다는 뜻인데 박금주 외(2005)는 습관 형성의 적기가 영유아기임은 우연이 아니며 예술적 습관 형성의 적기 역시 영유아기임을 강조한다. 습관 형성은 곧 문화화의 과정으로서 학교의 영향력을 확인하게 해 주고 가정과 학교 문화의 불일치는 정서를 교육의 주요 목표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므로 정서적 안정은 개인의 존재감 형성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이 교수-학습 방법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들이 음악을 이해하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예술적 질서 인식에 대한 습관화를 형성해야 함은 공식과 같다. 변화하는 학문에 부응한 유아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영유아교사는 올슨과 브루너(1996, p.31)가 제기한 다음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있는가? (아니다).

지식은 놀이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야기나누기가 그러한 놀이의 시작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변화의 시대는 교수자의 관점 전환을 요구한다. 행위주체자로서 영유아를 바라보기. 상호주관성을 강화하여 의도된 상태에서의 관찰의 대상인 영유아를 관찰하기, 메타 인지적 관점에서 기억하고 학습하고 사고하기, 협동과정을 통한 문제해결하기 등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사회문화주의에서 주장하는 일반적인 학습이론을 넘어서서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성인은 당연히 아동이 자신의 사고과정을 알아가도록 이끌면서 주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심은 역사학적 관점도 해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은 교육의 가능성을 생물학적 문화적 기초에 두고 인간다움의 가능성에 학습자의 마음을 놓고 통제 가능한 연습을 통하여 지식 구성을 하고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함으로써 상호관계를 승화시키는 것이다. 즉 모델은 모방행위를 도모하고 자기화를 통한 가치차조를 가능케 하므로 교사와 영유아는 스스로 모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화를 통한 가치창조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가치 창조의 과정이 감성 형성으로 이어져 예술적 경험을 승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날슨(Donaldson, 1996)은 새로운 경험의 확장과 예상치 않은 돌발이 시공간을 뛰어 넘어 개인의 관심사를 야기함으로써 감성과 가치 창조로 이어진다고 예술체험의 가치를 부각시킨다고 설명한다.

아동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서는 학습사회를 위한 마음의 습관이 인간발달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고 역사적 관점에서 인간을 관조할 것을 권한다. 여기에는 정신적 습관 형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므로 학습과 마음이 동일시되어 마음을 교육하는 방법이 바로 영유아 대상의 예술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따라서 영유아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출해내는 마음의 언어를 교수-학습 방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사는 영유아의 마음 읽기에 기초하여 음악교육을 실행해야 하므로 하나의 문화 또는 그 하위문화에 내재하는 교육적 실제의 관계가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 안팎에서 올슨과 브루너의 주장과 같이 영유아 개개인의 마음읽기를 통한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계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전통적으로 고수되어온 일반적인 방법과의 차이이다. 따라서 영유아는 어른이 만든 기호체계를 단순 모방하지 않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또래들과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형상화하고 창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지에 대한 숙고가 영유아음악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교수-학습 방법이다.

2. 실행의 방안

렌즐리(Renzulli, 1978)는 음악적 잠재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특정 분야의 경험 촉진과 심화 그리고 창의적 산출물의 생산을 격려하도록 강조했다(오주일, 김영연, 2005; Gordon, 1986). 당장 현재 무엇인가를 수행해 능력 외에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아동이 끼나 창의적인 발상, 특별한 생각과 기술에 대하여 성인들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의미가 담긴 음악적 체험은 영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찰을 유도하며 몰입의 정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한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에 대하여 신경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인지능력과 감성 능력은 동일하다고 한다(승윤희, 2004). 따라서 영유아의 음악 체험은 영유아의 비언어적 표현능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심상을 동반한 영유아의 아름다움의 체험은 상징체계를 동반한 표상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의 체험과 표상능력은 역동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제는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상징체계에 기초한 경험을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가이다. 상징체계를 동반하는 아름다움의 체험은 개념적 접근, 통합적 접근, 활동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에 의하여 가능한데 수업의 성패는 각각에 대한 교사의 지식 정도에 달려있다. 예술세계의 반복, 변화, 대조, 대비의 개념은 음악, 미술, 동작에서 동시 표현 가능하다. 통합적 접근은 음악, 미술, 동작을 동시에 아우르는 활동을 통하여 가능하고 활동적 접근은 노래부르기, 연주하기, 극놀이하기, 감상하며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의 분리적, 연합적 시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음악을 포함한 예술체험이란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로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의 틀과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즉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만의 독창적 내지 독립적 표현을 해 내는 능력을 뜻한다. 영유아에게 예술체험은 준비된 놀이와도 같다.

브루너 그리고 그린과 올슨 등은 예술교육은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에 속하는 교과영역라고 지적하였다. 중핵이란 분리될 수 없는 단위의 개인이나 사물로서 예술과목은 누구나가 배워야할 권리가 있는 교과목이라는 뜻이다. 이 교과목을 상실하면 추후 평범한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결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교과목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런데 예술세계에 숨겨진 예술의 형식은 때로 대중의 접근을 방해한다. 음악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가난하고 소수자일 경우 특히나 더욱 방해 받을 가능성이 많다(엘리엇,

2012). 이런 특징은 절대적으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관점에서 불균등한 면 모라고 할 수 있기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은 영유아교육과 음악교육의 양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다음에 유념하여 실행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교사는 영유아의 행복감에 민감해야 한다.

2030년 이후의 인간의 수명은 130세 전후일 것으로 예측한다. 김신일(2000), 문용린(2004)과 박도순(2003)은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다른 직종에서 종사할 것을 예상하고 각자는 평생교육을 준비하라고 안내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을 거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만족스럽고 즐거워하는가이다. 교육의 과정과 결과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야 생명력이 있다. 행복은 느껴지는 것인가? 그 행복감의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사회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을 배우며 살아가라고 요구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다른 모든 것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하겠으니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도 경쟁의 대상이니 네 뒤편 열심히 챙기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현재 나의 권익을 우선 챙기는 냉혹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이다. 그들의 행복감을 어디에서 찾아줄 것인가? 해결책은 음악교육이다.

둘째, 영유아 교사는 자신의 예술철학을 점검해야 한다.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듀이, 브루너는 경험 중시의 감각교육과 인간의 감성 발견 그리고 어린이의 감정 표현이 극대화되도록 인성교육은 감성교육에서라고 강조하였다(김영연, 2002; Bruner, 1996). 그들이 제시한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이성적 사고력과 따뜻한 마음을 갖추어 자신의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자신의 감성을 잘 발견해내고 개발하는 것이다. 보기보다는 듣기를, 복잡함보다는 간결함을,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적 관계를 중시한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을 배려함이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Gardner, 1983; 1993)에서와 같이 인간 발달의 세부적 지능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던 사회가 강조하는 ‘창의성’ ‘감성적 인성’ 발달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하여 영유아교사는 음악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을 키워내기 위하여 자신의 예술교육 철학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영유아교사는 자신의 예술 잠재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현장에서 영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필요한 예술관련 교육 정보는 무엇일까? 아마도 영유아교육과 예술에 대한 전공 교과지식과 교육내용,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 기술일 것이다. 현대사회의 교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교육 목적은 현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잘 양성하여 서로가 존중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발전하는 사회를 일구어나가는 것이다. 서로를 안다. 이해한다. 소통한다. 협력한다. 이루어낸다. 변화시켜간다 등으로 표현되는 교육실천의 과정은 세대를 거듭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 상호 협력적으로 인간관계를 구축해 왔기에 결국 교육이란 인류 발전을 향한 사람들의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과업의 연속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유아 교사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감성적, 인성이 풍부한 꿈나무를 키워내는 이 시대의 책임자이다. 교사 자신이 잘 하는 그 무엇은 언제부터 했나? 잘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 때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육풍토는 두뇌와 가슴을 이용하더라도 생각과 상상력의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는 평가 체제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그러다보니 당장 눈에 보이는 점수로 수행한 과업의 결과를 성공이나 실패로 즉각 이원 분리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익숙하다. 만약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하다보면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 보인다’라는 성취 정도와 수준 중심의 평가를 받는다면 실패보다는 희망을 더 생각하게 될 것 같다. 개인의 잠재력이란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 즉각적이기에 앞서 지속적으로 열정을 담은 나의 연습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옆에서 재촉해 주는 것, 그래서 자기를 향한 유형, 무형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그리하여 아마도 교사가 그 어떤 것은 오래 전부터 누군가의 발견 및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오늘날 스스로 잘 해내는 그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각자가 가진 음악적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가정은 현실로 다가온다.

넷째, 영유아교사는 음악교육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

교사는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유아가 음악적 요소를 탐색하는 태도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책임이 있다. 영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 미술 등 예술과 접하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의도된 의미와 지속적인 규칙이 내재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예술작품과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유아의 영혼에 생명감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교실에는 악기장과 충분한 양의 다양한 악기와 예술 교재·교구, 보조도구 등을 갖추고 미술 작품을 전시하여 영유아의 예술적 자극을 유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사 스스로의 음악 체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예술 활동 연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새로운 작품을 대하고 새로운 교재교구나 악기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익히기에 간단한 우크렐레나 오카리나, 장구 등 다양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해야 한다. 교사의 예술에 대한 안목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예술적 체험을 촉진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모여 교사 합창단을 만들어 보거나 리코더 합주단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음악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의 정기 관람을 교사 동아리 형태로 함께함도 필요한 교사 체험 활동이다. 교사들은 예술을 즐기는 가운데 스스로 예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러한 자신감은 영유아를 향한 예술교육의 열정으로 전환되어 영유아의 예술적 잠재력을 일깨울 것이다.

IV. 나오며

결론적으로 아동심리학은 인간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한다. 심리학에 기초를 둔 영유아의 음악적 잠재력은 음악성 발달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하고 궁극의 목적은 발견된 음악적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감으로써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 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해는 영유아교육자에게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과학에의 맹신은 오히려 위험하다. 이는 전통적 관점으로서 과학에의 맹신이나 교수자 중심의 교육은 초현대사회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다. 초현대사회는 학습자 중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영아와 사고의 결과물을 표상해 내는 능력이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적극 상호작용해나가는 교수자의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의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 집단은 음악교육과 영유아교육 양 방향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심리학은 새로운 관점에 의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실현을 강조하고 횡적 성숙에 의존한 발달에 대한 이해 외에 다양한 접근에 따른 발

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영유아를 음악 행위자, 삶과 사고의 주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음악정보와 마음의 음악소리가 뇌 신경망을 활성화 시킨다는 승윤희(2005)의 연구 결과는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능력 간의 유기적 역학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려준다. 특별히 음악교과가 분리되어있지 않은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상 영교사가 유아의 마음 잘 읽기를 통하여 전개되는 음악교육은 매우 기술적이고 예술적으로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영유아음악교육은 음악을 매개체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준하여 설정한 교육목표를 쫓아가기 위한 활동 및 평가 중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배려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휴머니즘적 관점에 기초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영유아와의 음악교육에 대한 분석보다는 참여를 통하여 예술교육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공평해지도록 유도하는 평범한 접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유아 교사는 분명 교실과 기관 안과 밖 모든 공간에서 다중역할자이다. 교실에서는 영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면서 열정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영유아를 관찰하며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수업 목표의 균형점을 발견하려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영유아교사는 능숙한 편곡자요 즉흥연주가와 같이 수정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며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함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간학문적인 교육과정 실체의 균형 및 연계 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문가적 예술관련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사 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특히 예술교과 교수-학습에 관련한 협동 활동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료 교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해주며 분야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기관 밖에서는 기관과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교육활동 마련에 민감히 대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수학습 지도의 임무와 기관 및 교실에서의 향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공유하고 이때 교사의 역할은 조연자 및 지도자로 존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긴밀한 연계를 유지한다면 학부모와 다른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향상되고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는 변화하는 심리학에서 강조되는 바대로 학습자 중심, 체험중심의 마음이 소통하는 음악교육이 될 것이

다. 체험을 통하여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음악교육은 영유아에게 인성발달과 창의성 개발을 도모할 것이며 영유아 각자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안정적인 전인격체로서의 성장 발달을 촉구해나가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독립적 인격체로서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휴머니즘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현석 외 역 (2011) **인간교육학의 새로운 도전 : 교수-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원저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edited by Olson, D. & N. Torrance, 1996).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 (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권덕원 (2004) 학교음악교육: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27, 27-63.
- 김방현 역 (1990). **음악사회학 입문**(원저: Introduction to sociomusicology by T. Adorno, 1968). 서울: 삼호출판사.
- 김신일 (2000). 새 문명 시대의 교육패러다임.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기조강연.
- 김영연 (2002). **개정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 김영연, 이영애 (2010).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와 우리 음악교육. **음악교육연구**, 39, 209-221.
- 김희연, 신옥순, 염지숙, 유혜령, 정선아 역 (2007). **포스트모던 유아교육: 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열어가기** (원저: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stmodern perspectives* by G. Dahlberg, P. Moss & A. Pence, 1997). 서울: 창지사.
- 문용린 (2004). 유아교육의 정체성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기조강연.
- 민경훈 (2005)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들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교육연구** 37, 1-34.
- 박도순 (2003).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기조강연.
- 박은실 (2012). 창의성 연구의 다양한 시각과 함의들. **음악교육연구**, 41(1), 61-88.

- 박향원, 임부연 (2012). 심미적 유아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연구** 32(5). 495-524.
- 석문주 (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91-128.
- 승윤희 (2004). 지식표상이론과 음악지식의 표상. **음악교육연구**. 27. 129-154.
- 승윤희 (2005). 정보처리이론에 기초한 음악교수-학습방법 연구. **음악교육연구**. 29. 45-74.
- 오주일, 김영연 (2004). 유아의 음악영재성에 대한 고찰. **유아교육연구**. 189-208.
- 유네스코 (2010).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 Education held in Seoul, Korea.
- 유혜령 역 (2005). **유아교육이론 해체하기: 비판적 접근**. (원저: Deconstructing childhood education: Social justice and revolution by). 서울: 창지사.
- 유혜령 (2009). 교육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의 성찰과 연구 기법의 문제. **아동교육**. 18(1). 37-46.
- 유혜령 (2012). 해석학적 텍스트로서의 레지오 기록의 의미: 교육적 불안과 희망의 양면성. **유아교육연구** 32(5). 415-433.
- 이수원 (2012). 바흐친(Bakhtin)의 대화주의 이론(Dialogism)과 유아교육적 적용. **유아교육연구**. 32(5). 257-275.
- 이흥수 (2006a). 학회 활동 50년 반성과 과제. **음악교육연구** 31. 1-8.
- 이흥수 (2006b). 교육과정 개정(제8차) 시점에서 본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방향. **음악교육연구** 31. 145-16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http://webzine.arte.or.kr/arte_eng/news 2008-01-28.
- 허 숙 (2012). 한국교육과정의 흐름과 발전의 방향. **더 나은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과제와 전망**. 한국유아교육학회 2012 정기학술대회. 19-39.
- Bourdieu, P. (1970).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publisher.
- Bruner, J. (1995) *Culture of education*. NAFME. 7-11.
- Case, R. (1996). Changing view of knowledge and their implication on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In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Edited by Olson, D. R & N. Torranc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75-99.
- Donaldson, M. (1996) Humanly possible: Education and the scope of the mind. (In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Edited by

- Olson, D. R & N. Torranc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324-344.
- Eisner, E. W. (1979).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NY: Macmillan.
- Elliott, D. (2012). Music education as/for artistic citizenship. *MEJ*. 99(1). NAFME
- Freire, P. (1973). *Pedagogy*. NY: The Seabury Press.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ordon, E. (1986). *The nature, descrip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 aptitudes*. Chicago: GIA.
- Greene, M. (1996). A Rereading of Dewey's *Art as Experience*: Pointer toward a theory of learning. (In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Edited by Olson, D. R & N. Torranc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56-74.
- Hargreaves, D. (1986).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of Music*.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uger, A.C & Michael Tomasello (1996). Cultural learning and learning culture. (In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Edited by Olson, D. R & N. Torranc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369-387.
- Olson, D. R & N. Torrance (Ed.,) (1996).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an*.
- Shuler, Scott C.(2012) Core music education: Student's civil right. *MEJ* 98(4). NAFME. 7-11.
- Watson, R. (1996). Rethinking readiness for learning. (In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Edited by Olson, D. R & N. Torranc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148-172.
- Wertsh & Penuel. (1996) (In *The Handbook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Edited by Olson, D. R & N. Torrance).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ABSTRACT

Suggestions for Music Education of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from the New Perspectives of Child Psychology

Kim, Young-Youn

In the current post-modern society, human beings have the enormous amount of scientific privileges in ordinary daily life. However we, human beings, are eager to experience artistic stimulus as well as artistic consumption. Besides adults, such social phenomenon applies to young children's lives too in the formal education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nsider the necessity of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aged under five from the new perspectives of child psychology in order to suggest early childhood music educational directions in practical settings. Related literatural review was utilized as research method. From the stud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ly, from the review of past as well as current aspects on child psychology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philosophy, educational content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it was found that the educational focus changes from teaching-oriented approach into learning-oriented one. And music education was discussed as a possible educational solution for the people in modern society where materials were more emphasized than democracy and human equality. Secondly, the tips towards the teachers of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practical teaching setting were provided as a way to develop music education as an academic subject. In conclusion, teacher's atten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ildren's mind as well as teacher's sensitivity on child's feeling of happiness were required as the starting point of teaching and the pivot in the global society.

key words: post modernism, child psychology,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투고일: 2012년 12월 31일, 심사(수정): 1월 28일(2월 13일), 게재 확정일: 2월 21일